

#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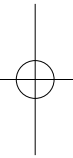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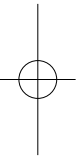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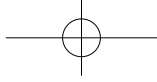
제1부에 있는 2개 장은 거시경제학의 주요 문제와 접근 방법을 소개한다.

## Chapter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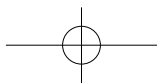
제1장에서는 거시경제 현상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여행을 떠나 본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세계 경제를 지배하였던 경제위기를 살펴보는 데서 출발한다. 미국, 유로 지역, 중국 등 세계의 주요 경제대국을 여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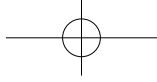
## Chapter 2

제2장에서는 이 책을 여행해 본다. 우선 거시경제학의 3대 변수인 산출, 실업, 인플레이션을 정의한다. 이어서 이 책의 각 장을 묶어 주는 세 가지 개념인 단기, 중기, 장기를 소개한다.



..





# 세계 경제로의 여행

## 거

거시경제학이란 무엇인가? 형식적 정의보다는 세계 경제를 여행하면서 주요한 경제적 변화를 살펴보고 거시경제학자와 정책당국자들을 잠들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보는 것이 더 낫다.

이 책이 쓰일 당시(2015년 가을) 정책당국자는 수년 전에 비해 편히 잠을 자고 있다. 2008년에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거시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들어섰다. 통상 연간 4~5% 수준을 보였던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9년에 음(-)의 값을 보였다. 이후 성장률은 양(+)의 값으로 돌아섰고 세계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많은 상처를 남겼고, 많은 사람들은 남겨진 상처를 걱정하고 있다.

이 장은 이들에 대해 감을 갖도록 하고 오늘날 각국이 겪고 있는 거시경제 문제의 일부를 다루는 데 목적이 있다. 위기에 대한 개요에서 시작하여 이어서 세계 3대 경제강국, 즉 미국, 유로 지역 그리고 중국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1.1절은 위기를 개관한다.

1.2절은 미국을 살펴본다.

1.3절은 유로 지역을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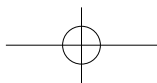
1.4절은 중국을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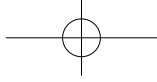
1.5절은 결론을 내리고 미래를 조망해 본다.

신문을 보듯이 이 장을 읽자.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나 모든 논점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자. 단어들은 나중에 정의될 것이고 논점은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거시경제의 주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배경 설명으로 간주하자. 제1장을 즐겁게 읽는다면 이 책 전체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모두 읽고 난 후 제1장으로 돌아와서, 주요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검토하고 여러분의 거시경제학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생각해 보자. ●



그렇지 않다면 사과를 하고 싶다.





## 1.1 위기

그림 1.1에는 2000년 이후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선진국과 여타 국가로 나뉘어 나타나 있다. 보다시피 2000~2007년간 세계 경제는 지속적으로 팽창했다. 연평균 세계 경제성장률은 4.5%였고 30여 개의 부국으로 구성된 선진국 경제는 2.7%로 성장했으며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나머지 150여 개 국가들)은 연간 6.6%로 더 빨리 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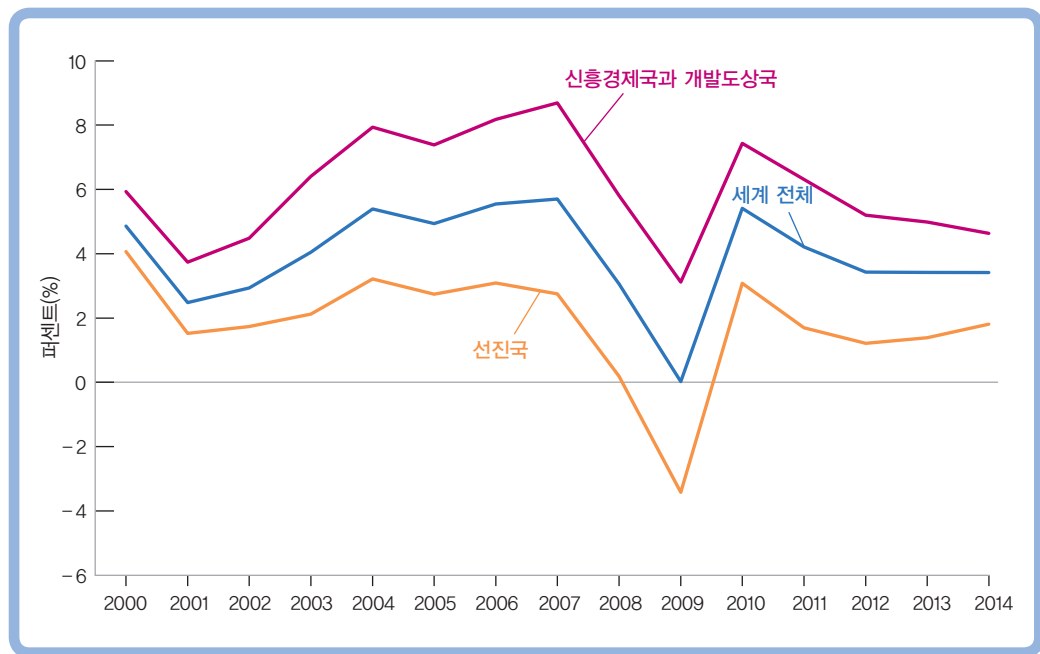
그러나 2007년에 경제팽창이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0년 이후 2배 상승한 미국의 주택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경제학자들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낙관주의자들은 주택가격이 주택건축을 위축시키고 소비 지출을 낮출 수 있겠지만, Fed(미국 중앙은행으로 연방준비은행으로 불리는 Federal Reserve Board의 약어, 이하에서는 ‘연준’으로 통칭)가 이자율을 낮추어 수요를 자극하고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 비관주의자들은 이자율의 인하가 수요를 지속시키기에는 역부족이며 미국은 단기 침체를 경험할 것이라고 믿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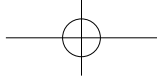
하지만 비관주의자들의 견해조차도 충분히 비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가격이 꾸준히 하락함에 따라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과거 팽창기 동안 이루어졌던 많은 주택담보대출이 불량이었음이 분명해졌다. 많은 차입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받았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그리고 주택가격의 하락과 함께 주택담보물의 가치가 종종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유인을 제공했다. 이것이 최악은 아니었다.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했던 은행들은 이들을 모아 새로운 증권을 발행해서 다른 은행과 투자자들에게 매각했다. 이 증권들은 종종 또 다른 증권으로 반복적으로 다시 포장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대신 이 증권들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 증권은 너무 복잡해져서 그 가치를 평가한다

여기서 ‘은행’은 실제로는 ‘은행과 여타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그러나 명칭이 너무 길고 제장에서 다루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표현했다.

그림 1.1 경제성장률: 세계 전체, 선진국,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 2000~2014년

자료 : World Economic Outlook 데이터베이스, 2015. 7. NGDP\_RPCH.A.





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복잡성과 불투명성으로 말미암아 주택가격 하락이 중대한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지만, 이를 예상했던 경제학자들은 극소수였다. 다른 은행들이 대차대조표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등급을 모르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서로 금융거래를 꺼리게 되었다. 빌려준 돈을 상환받지 못할 두려움 때문이었다. 차입이 어려워지고 보유자산의 가치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2008년 9월 15일에 주요 은행 중 하나였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였다.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극적이었다. 리먼 브라더스와 다른 은행들 간의 거래관계가 지나치게 불투명했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은행 역시 파산의 위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2~3주 동안 금융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것 같아 보였다.

이러한 금융 위기는 곧장 중대한 경제위기로 바뀌었다. 주가는 붕괴하였다. 그림 1.2는 2007~2010년간의 미국, 유로 지역, 그리고 신흥경제국의 주가지수 추이를 보여 준다. 지수는 출발점인 2007년 1월을 1.0으로 두었다. 그러나 2008년 말 주가는 과거의 정점에 대비해 볼 때 절반 이상의 가치를 상실했다. 아울러 위기가 미국에서 시작하였지만, 유럽과 신흥시장의 주가 역시 미국만큼 하락했다. 후에 이를 다시 다룰 것이다.

주택가격 하락과 주가 붕괴에 충격을 받고 이 위기가 새로운 대공황의 시작이 될 것을 걱정하여 사람들은 소비를 급격히 위축시켰다. 매출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기업들은 투자를 급격히 감소시켰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빈집이 늘어나면서 극소수의 주택만이 신축되었다. 이자율을 0% 수준까지 인하한 미 연준과 조세 인하와 지출 증가를 도모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 저자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2주 전에 IMF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로서 일을 시작했다. 이후 저자는 빠른 학습곡선을 올라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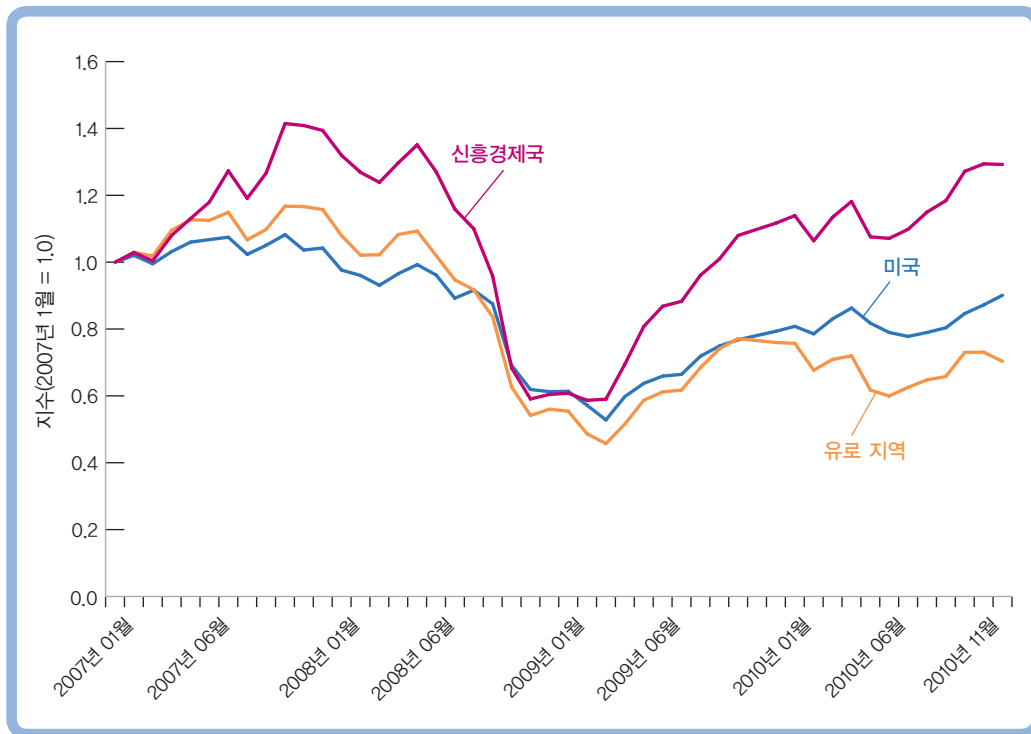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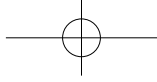


그림 1.2 미국, 유로 지역 및 신흥경제국의 주가, 2007~2010년

주 : 모두 월평균

자료 : Haver Analytics 미국(S111ACD), 유로 지역(S023ACD), 신흥시장 전체(S200ACD)



수요가 감소하고 또 산출이 감소했다. 2008년 3분기에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음(-)으로 돌아섰고 2009년까지 그 상태가 지속되었다.

위기가 대체로 미국에 머물 것이라고 기대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림 1.1과 1.2 모두가 보여 주듯이 그렇지 못했다. 미국의 위기는 곧 세계의 위기가 되었다. 다른 국가들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영향을 받았다. 첫 번째 경로는 무역이었다.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이 지출을 위축하였고, 그 일부는 외국재 수입의 감소로 귀결되었다. 각국의 대미 수출은 위축되었고, 이것은 다시 각국의 생산을 위축시켰다. 두 번째 경로는 금융이었다. 미국에서 자금이 긴박할 정도로 필요했던 미국의 은행들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였고, 결국 다른 국가들의 은행들에서도 문제가 생겨났다. 은행이 어려움에 빠지자 대출이 중단되어 지출과 생산이 감소했다. 또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정부는 부채를 크게 축적했고 상당한 적자를 기록하였다. 투자자들은 부채 상황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훨씬 높은 금리를 요구했다. 높은 금리에 대응해 정부는 지출을 감소시키고 세금을 인상해 적자를 크게 줄였다. 이는 수요와 생산을 더욱 감소시켰다. 유럽에서는 생산 감소가 극심해서 이른바 유로 위기(Euro Crisis)가 발생했다. 요약하면, 미국의 경기침체는 세계의 경기침체로 변했다. 2009년경에 선진국의 평균 성장률은 -3.4%를 기록하여 대공황 이래 가장 낮은 연간 성장률을 보였다. 신흥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에서의 성장률은 계속 양(+)의 값을 보이긴 했지만 2000~2007년 평균보다 거의 3.5%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이후 강력한 통화재정정책과 금융시스템의 점진적 회복으로 대부분의 경제는 반전되었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선진국의 성장은 2010년부터 재개되었고 이후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 그러나 회복은 인상적이지도 고르지도 않다. 일부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 실업률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었다. 그러나 유로 지역은 아직도 고투하고 있다. 성장은 보이지만 낮고, 실업률은 여전히 높다.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도 회복되었지만, 그림 1.1에서 보듯이 위기 이전보다 낮으며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다.

무대를 마련했으니 이제 세계 3대 경제강국인 미국, 유로 지역 그리고 중국을 둘러보자.

## 1.2 미국

미국보다 높은 생활 수준을 가진 국가는 어디일까? 힌트 : 산유국과 금융센터를 생각해 보라.

답을 알고 싶다면 [www.imf.org/external/pubs/ft/weo/2015/01/weodata/weoselgr.aspx](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5/01/weodata/weoselgr.aspx)를 방문해서 "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current prices"를 찾아보라.



경제학자들이 특정 국가를 처음 살펴볼 때 던지는 질문은 두 가지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국가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생활 수준은 얼마나 되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산출, 즉 국가 전체의 생산 수준을 살펴본다. 두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1인당 산출을 검토한다. 미국에 대한 답은 그림 1.3에 있다. 미국은 대국으로 2014년 산출 수준이 17조 4,000억 달러에 달해 전 세계 산출의 23%를 차지한다. 즉, 경제적 의미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이다. 미국의 생활 수준 역시 매우 높다. 1인당 산출은 54,600달러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산출 수준은 아니지만 가까운 것은 사실이다.

경제학자들은 국가의 건강한 상태를 더 깊이 검토하고자 할 때 3개의 기초적 변수에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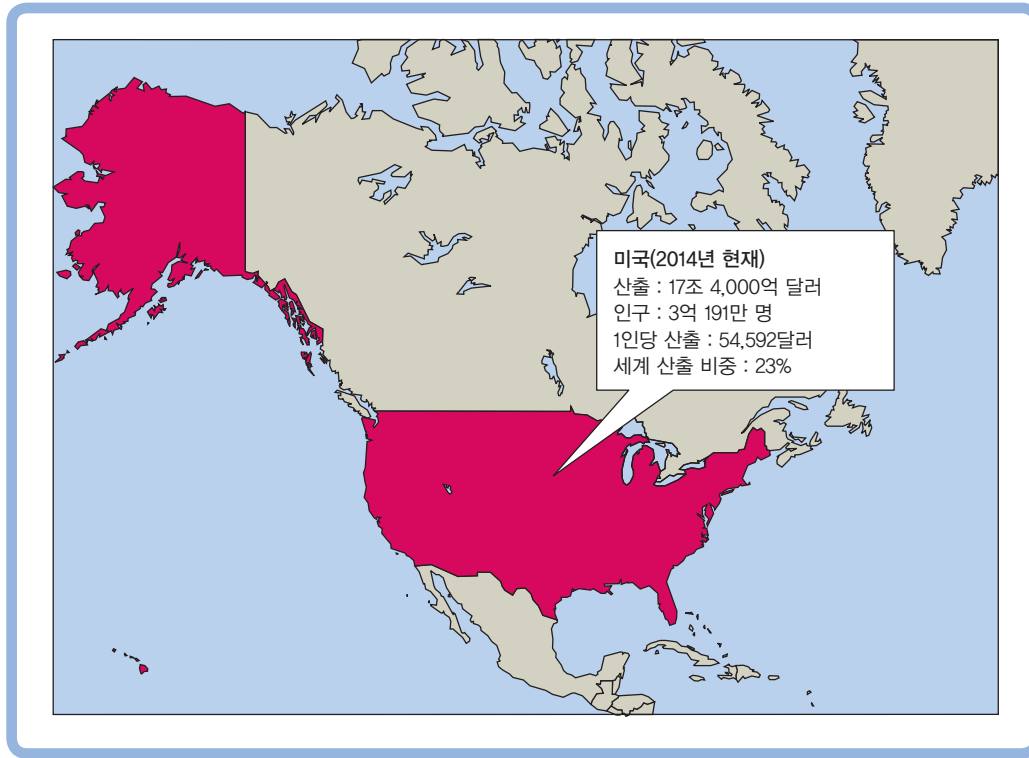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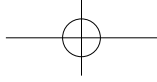


그림 1.3 미국(2014년 현재)

- 경제성장률—산출의 변화율
- 실업률—고용되지 않아 직업을 찾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
- 인플레이션율—경제 내 상품의 평균 가격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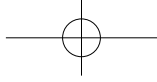
미국에 대한 이들 세 변수의 값이 표 1.1에 나타나 있다.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열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율의 평균값을 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1990~2007년의 기간에 대해 보여 주고 있다. 두 번째 열은 위기가 심했던 2008년과 2009년의 수치를 보여 준다. 세 번째 열은 2010~2014년의 수치를, 마지막 열은 2015년의 수치(더 정확하게는 2015년 가을 시점에서 2015년 전체에 대한 예측치)를 나타낸다.

표 1.1 미국의 성장, 실업, 인플레이션 : 1990~2015년

퍼센트(%)	1990~2007년 (평균)	2008~2009년 (평균)	2010~2014년 (평균)	2015년
경제성장률	3.0	-1.5	2.2	2.5
실업률	5.4	7.5	8.0	5.4
인플레이션율	2.3	1.4	1.6	0.7

경제성장률 : 산출(GDP)의 연간 성장률. 실업률 : 연간 평균. 인플레이션율 : 물가(GDP 디플레이터)의 연간 변화율.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5. 7.



2015년의 수치를 보면, 이 시점에서 경제학자들이 왜 미국 경제에 대해 대체로 낙관적인지 이유를 알 수 있다. 2015년의 성장률은 1990~2007년 평균치보다 약간 낮은 2.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와 그 여파로 증가(2010년 10%)했던 실업률은 5.4%로 감소하여 1990~2007년 평균 수준으로 돌아갔다. 인플레이션은 1990~2007년의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 경제는 위기의 영향을 대체로 벗어나서 양호한 상태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성장을 지속할 만큼 수요가 강하도록 연준은 불안할 정도로 금리를 매우 낮게 유지해 오고 있다. 그리고 생산성 증가는 둔화되어 미래의 성장이 평범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두 문제를 차례로 살펴보자.

### 낮은 이자율과 명목이자율 하한

대량의 현금 보유는 불편하고 위험하므로, 사람들은 적은 마이너스 이자를 받더라도 채권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이너스 이자율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지나치면 사람들은 현금으로 전환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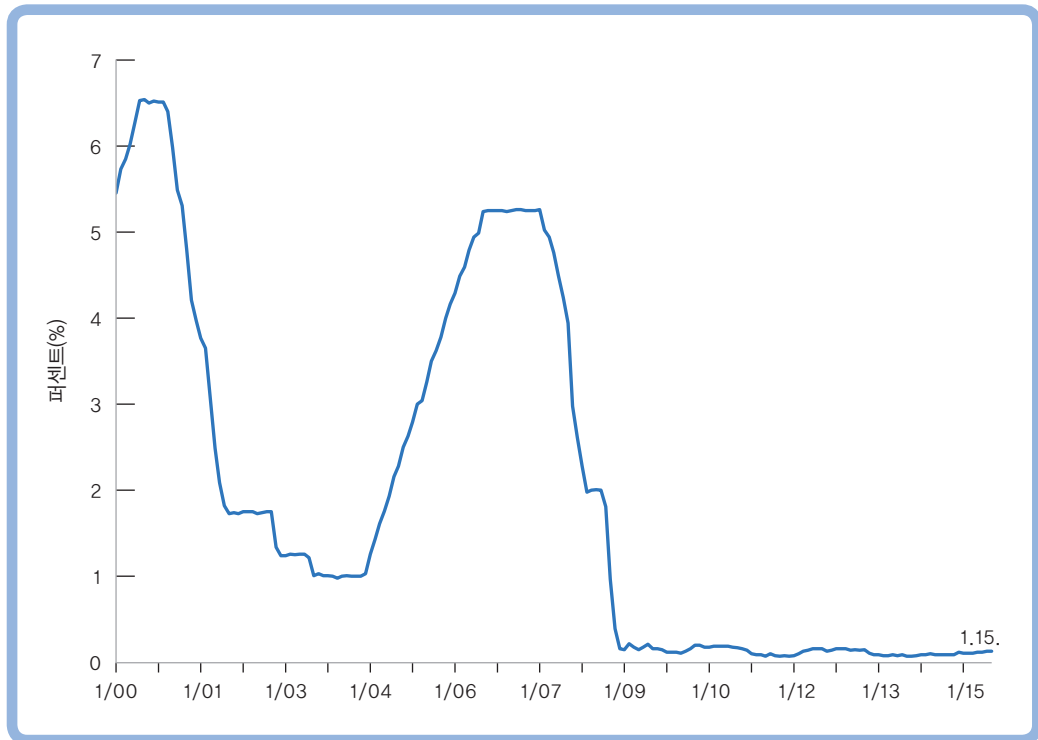
위기가 시작되자 연준은 자신이 통제하는 이자율인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를 인하하여 지출 위축을 억제하려 했다. 아래쪽의 그림 1.4에서 알 수 있듯이 연방기금금리는 2007년 7월의 5.2%에서 2008년 12월에는 거의 0%(정확히는 0.16%)가 되었다.

연준은 왜 0%에서 멈추었을까? 이자율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자율이 마이너스이면 아무도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대신 현금을 보유하려 할 것이다. 현금 역시 0%의 이자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거시경제학자들은 이 제약을 명목이자율 0% 하한(이하 명목이자율 하한)으로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2008년 12월 연준이 마주쳤던 한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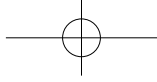
소비자로서는 차입이 그리고 기업으로서는 투자가 유리해질 정도로 이자율이 급락하자 수요와

그림 1.4 2000년 이후 미국의 연방기금금리

자료 : Haver Analytics.







생산의 감소는 분명히 억제되었다. 그러나 앞서서나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피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다. 2008년과 2009년 모두 미국 경제는 위축되었다. 경제 회복을 위해 연준은 금리를 0%에 가깝게 두었고, 지금(2015년 가을)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연준의 계획은 곧 금리인상을 시작하는 것이므로, 독자가 이 책을 읽을 때쯤이면 금리는 인상될 것 같지만 역사적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낮을 것이다.

저금리가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저금리가 연준이 향후의 부정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자율이 0%대이고 수요가 더 감소하면 연준이 수요 증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둘째는 저금리가 투자자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채권 보유에 따른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수익률을 높이려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려 한다. 그리고 지나친 위험 감수는 이미 경험해 온 유형의 금융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분명히 이미 경험한 것과 같은 위기를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 저조한 생산성 증가는 얼마나 걱정해야 하나?

연준은 단기에 성장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수요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걱정해야 하지만, 장기에 있어 성장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주요 요인은 생산성 증가로, 생산성 증가가 없다면 1인당 소득의 지속적 증가가 있을 수 없다. 바로 이 점에 있어 걱정스러운 뉴스가 있다. 표 1.2는 1990년 이래 미국에서 민간 부문 전체와 제조업 부문에 대한 평균 생산성 증가율을 10년 단위로 보여 준다. 보다시피, 2010년대의 생산성 증가율은 1990년대와 비교하여 절반 정도이다.

이 점을 얼마나 걱정해야 할까? 생산성 증가율은 매년 크게 변하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안 좋은 해가 몇 년 있었던 것일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경제학자들은 측정 문제로 인해 산출 측정이 어렵고 생산성 증가가 과소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신형 스마트폰의 실질 가치를 구형 모델과 비교하기 어렵다. 가격은 더 높겠지만, 구형 모델이 할 수 없었던 많은 기능을 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실제로는 저조한 생산성 증가 시기에 들어섰고, 현재의 IT 혁신의 주요 성과는 이미 실현되었으며 적어도 잠시 동안은 기술진보가 둔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특히 걱정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생산성 증가의 둔화가 불평등 확대라는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성 증가가 높으면 불평등이 커져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익을 볼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보다 혜택이 적겠지만 그래도 생활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현재 미국은 그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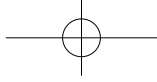
◀ 이 책의 뒷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연준과 같은 중앙은행은 수요 증가를 위해 몇 가지 다른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은 '비전통적 통화정책(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수단은 이자율만큼 잘 작동하지 않는다.

◀ IT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약어이다.

표 1.2 노동생산성 증가(10년 평균)

퍼센트 변화 : 연율(평균)	1990년대	2000년대	2010~2014년
비농업 기업부문	2.0	2.6	1.2
기업 부문	2.1	2.6	1.2
제조업	4.0	3.1	2.4

자료 : Haver Analytics.



지 못하다. 2000년 이래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실질 소득은 실제로 감소했다. 정책당국자가 이 추세를 뒤집으려면 생산성 증가를 높이거나 불평등의 증가를 억제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해야 한다. 이것이 현재 미국의 정책당국이 직면한 두 가지 주요 문제이다.

### 1.3 유로 지역

1957년 유럽 6개국이 사람과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제지대, 즉 공동 유럽시장을 형성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2개 국가가 추가로 이들 그룹에 가입하여 총 28개 국가가 참여하였다. 이 그룹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라 불린다.

▶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식 명칭은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였다. 아직도 이 명칭을 볼 수 있다.

▶ 유로 지역은 '유로존(Euro zone)'이나 '유로랜드(Euroland)'라고도 불린다. 전자는 지나치게 기술적이고, 후자는 디즈니랜드의 인상을 주므로 이 책에서는 이를 피한다.

1999년에 EU는 한발 더 나아가기로 결정했고 각국의 통화를 유로라 불리는 단일 통화로 교체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11개국만이 참여했지만, 이후 8개국이 추가되었다.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는 최소한 당분간은 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회원국 그룹의 공식적인 이름은 **유로 지역(Euro area)**이다. 이행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1999년 1월 1일 11개 국가는 각각 자국 통화의 가치를 유로에 고정시켰다. 예를 들어 1유로는 6.56 프랑스 프랑, 166 스페인 페세타 등으로 설정하였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제품 가격은 각국의 통화 단위와 유로 단위로 함께 매겨졌다. 그러나 여전히 유로는 통화로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 유로가 통화로 사용된 것은 2002년부터 이때부터 유로 지폐와 동전이 각국의 통화를 대체했다. 현재 19개국이 이 공통통화 지역에 속해 있다.

그림 1.5에서 보듯이 유로 지역은 강력한 경제력을 갖고 있다. 생산 규모는 미국과 거의 동일하며, 생활 수준은 크게 뒤쳐져 있지 않다. (EU 전체의 생산 규모는 미국을 넘어선다.) 그러나 표 1.3이 보여 주듯이 경제적 성과는 그리 좋지 않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위기가 극심했던 2008년과 2009년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특징지어졌다. 미국이 회복되었지만, 유로 지역의 성장률은 미약해서 2010년~2014년간 0에 가까웠다(실제로 이 중 2년은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15년에도 성장률은 1.5% 수준으로 예측되어 미국이나 위기 이전 평균에 비해 모두 낮다. 2007년부터 증가한 실업률은 11.1%로 미국의 거의 2배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율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의 목표치보다 낮다.

표 1.3 유로 지역의 성장, 실업, 인플레이션 : 1990~2015년

퍼센트(%)	1990~2007년 (평균)	2008~2009년 (평균)	2010~2014년 (평균)	2015년
경제성장률	2.1	-2.0	0.7	1.5
실업률	9.4	8.6	11.1	11.1
인플레이션율	2.1	1.5	1.0	1.1

경제성장률 : 산출(GDP)의 연간 성장률. 실업률 : 연간 평균. 인플레이션율 : 물가(GDP 디플레이터)의 연간 변화율.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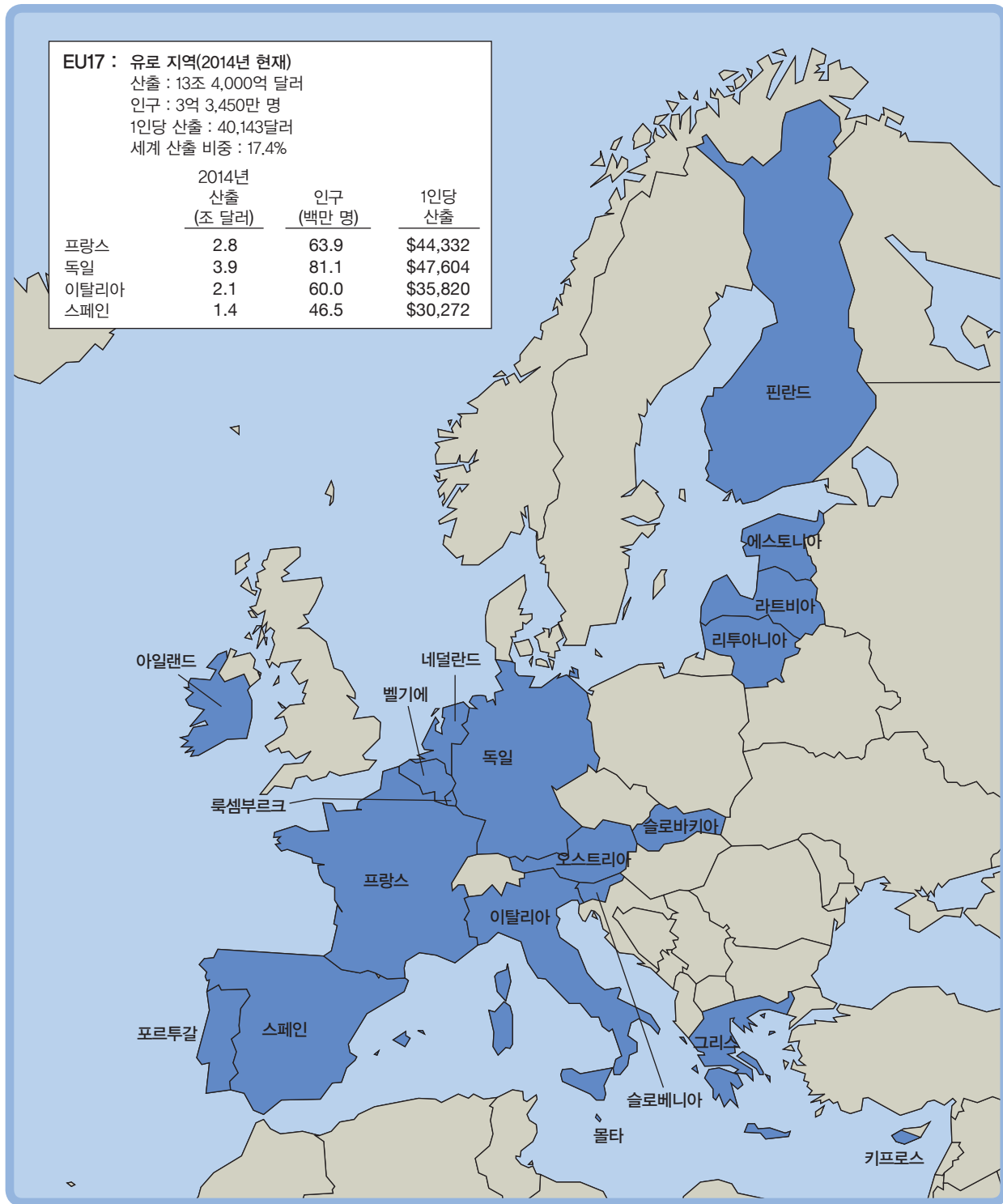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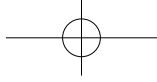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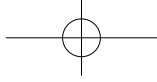


그림 1.5 유로 지역(2014년 현재)



유로 지역은 오늘날 두 가지 주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실업을 줄이냐이다. 두 번째는 **공통통화 지역**(common currency area)으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가능성과 그 방법이다. 두 문제를 차례로 살펴보자.

### 유럽의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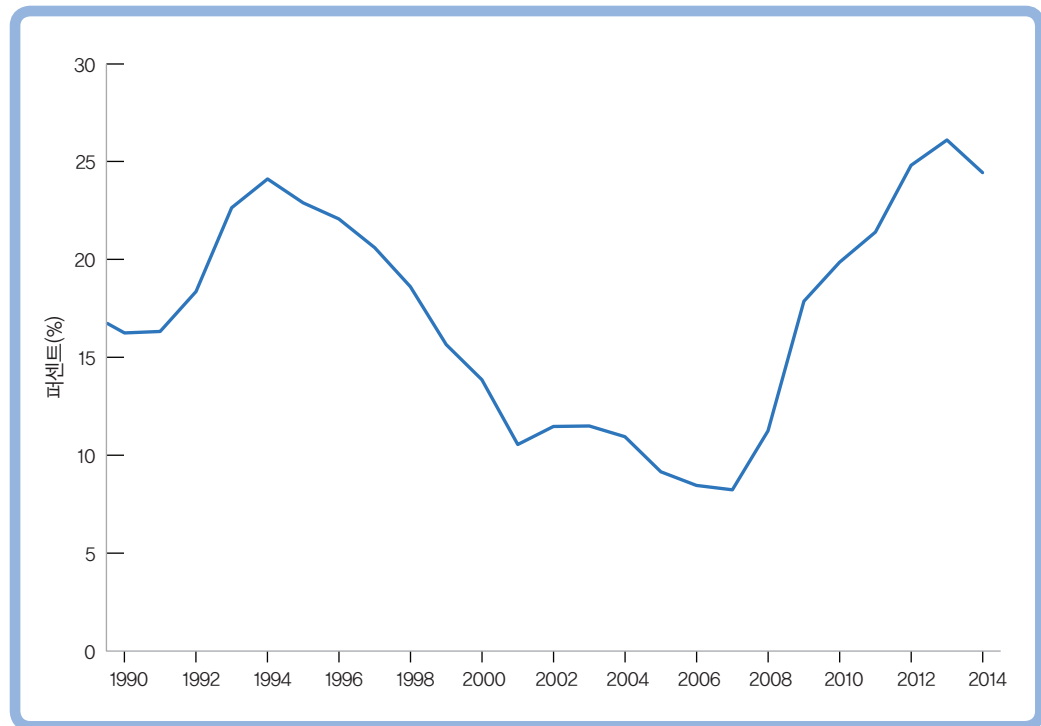
2015년만 보더라도 11.1% 수준인 유로 지역의 높은 평균 실업률은 국가별로 나타나는 큰 차이를 숨기고 있다. 한 극단으로 그리스와 스페인의 실업률은 각각 25%와 23%이다. 반면 다른 극단으로 독일의 실업률은 5% 미만이다. 중간 수준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가 있으며, 실업률은 각각 10%와 12%이다. 따라서 실업 감소 방법은 각국의 특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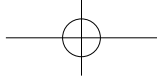
문제의 복잡성을 보려면 실업률이 높은 국가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그림 1.6은 1990년 이후 스페인 실업률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 준다. 1990년대 중엽 시작된 장기 호황 이후 실업률은 1994년 25%의 높은 수준에서 2007년에는 9%로 감소했다 그러나 위기와 함께 실업률은 다시 폭증하여 2013년에 25%를 초과했다. 현재는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높다. 그래프는 두 가지 결론을 제시한다.

- 오늘날 높은 실업률의 대부분은 위기의 결과이며 1.1절에서 논의한 수요의 급감에 기인한다. 주택시장은 활황에서 붕괴로 전환되었고, 여기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 더해져 2008년부터 실업이 증가했다. 결국 수요는 회복되고 실업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6 스페인에서의  
1990년 이후 실업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2015. 7.





- 얼마나 감소할 수 있을까? 활황의 정점에서도 스페인의 실업률은 9% 수준으로 미국의 현재 실업률의 2배에 이른다. 이는 위기와 수요 감소를 넘는 다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스페인과 다른 유럽 국가에서 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도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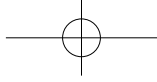
일부 경제학자들은 유럽 국가들이 근로자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 주된 문제라고 믿고 있다. 근로자의 실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해고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업들은 고용을 꺼리게 되었고 결국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원하지 않았던 파급효과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 국가는 여유로운 실업보험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실업자들의 구직 의욕이 감퇴되고, 이 역시 실업률을 높이게 된다. 이들이 주장하는 해법은 근로자 보호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제거하고, 미국 유형의 노동시장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실상 영국이 대체로 이러한 조치를 취해 왔고 위기 전까지 실업률은 낮았다.

그러나 다른 경제학자들은 더 회의적이다. 이들은 위기 전에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실업률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노동자를 보호하며 관대한 사회보험도 제공한다. 이는 문제가 보호의 강도에 있기보다는 그것이 구현되는 방법에서 기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학자들은 저 실업 국가들의 어떤 정책이 적절하고, 또 그 정책을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도전이라고 주장한다. 이 의문들을 해소하는 것이 오늘날 유럽의 거시경제학자들과 정책당국자들이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 유로는 유럽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유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로의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한다. 과거 유럽 국가들 간에 발생했던 많은 전쟁에 비추어 볼 때 공통통화의 수용은 군사적 충돌이 영원히 종식되었음을 보여 주는 가장 좋은 증거이다. 이들은 공통통화를 사용하는 데 따른 경제적 이득을 지적하기도 한다. 유럽 기업들은 더 이상 통화의 상대가격 변화를 고민할 필요가 없으며 유로 회원국을 여행할 때 환전의 필요성도 사라졌다. 유럽 국가 간 무역장벽의 제거와 더불어 유로는 경제대국의 탄생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로로의 전환이 21세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경제적 사건의 하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유로의 상징성이 경제적 비용을 동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위기 전에도 이들은 공통통화가 공통의 통화정책을 의미하며, 모든 유럽 국가에서 이자율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떤 국가는 경기침체에 빠져드는데 다른 국가는 경기활황에 놓여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경기침체를 겪는 국가는 지출과 생산의 증가를 위해 낮은 이자율을 필요로 하지만, 경기가 활황인 나라는 경기속도를 늦추기 위해 이자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만약 이자율이 두 나라에서 모두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 특정 국가가 장기간 경기침체를 겪게 될 위험은 없는가? 아니면 경기과열을 식힐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가? 또한 공통통화는 유로 지역 내에서 정책 수단으로 환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 적자가 과도해서 경쟁력이 높아질 필요가 있는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환율을 조정할 수 없다면, 경쟁자들에 비해 가격을 낮추어야만 한



다. 이는 고통스럽고 오랜 과정일 것이다.

유로 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논쟁은 다소 추상적이었다. 이제 더 이상 그렇지 못하다. 위기로 말미암아, 아일랜드와 포르투갈부터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로 회원국들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다. 독자적 통화를 가졌다면 다른 유로 회원국 대비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웃 국가들과 통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따라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일부 국가들이 유로에서 이탈하여 통화정책과 환율에 대한 통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다른 경제학자들은 탈퇴가 현명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파괴적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유로화 사용의 장점을 포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고, 기존의 경제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파괴적인 것이다. 이 문제는 상당 기간 동안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 1.4 중국

중국은 매일 뉴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세계의 주요 경제대국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당연한 것인가? 그림 1.7의 지표들을 처음 살펴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중국의 인구수는 막대하여 미국의 4배를 상회한다. 그러나 그 산출 규모는 중국의 화폐인 위안 기준의 값을 달러/위안 환율로 곱해 달러로 표시하면 10조 4,000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의 약 60%에 불과하다. 1인당 산출은 단지 7,600달러로 미국 1인당 산출의 약 15%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왜 중국에 관심이 집중될까? 주로 두 가지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1인당 산출로 되돌아가자. 미국과 같은 부유한 국가의 1인당 산출과 중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를 비교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빈곤한 국가에서는 많은 재화의 가격이 낮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뉴욕시의 평범한 식당의 식사비용은 약 20달러지만, 베이징에서는 약 25위안으로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4달러이다. 달리 말해, 동일한 소득(달러 기준)으로 볼 때 뉴욕시보다 베이징에서 더 많은 재화를 살 수 있다. 만약 생활 수준을 비교하려면, 이 차이를 수정해야 한다. 이 차이를 수정한 척도를 PPP(구매력평가,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이라 부른다. PPP 기준을 사용하면 중국의 1인당 산출은 약 12,100달러로 추정되며 이것은 대략 미국 1인당 산출의 1/4 수준이다. 이것이 중국의 생활 수준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그림을 제공한다. 분명히 미국이나 다른 부유한 국가들보다 훨씬 낮지만, 그림 1.7에 나타난 것보다는 높다.

둘째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 중국은 30년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것은 1990~2007년의 기간, 2008~2009년의 기간, 2010~2014년의 기간 그리고 2015년(추정치)에 대한 경제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을 보여 주는 표 1.4에 나타나 있다.

기초적인 이야기는 표의 첫 행에 나타나 있다. 1990년 이래(실제로 10년을 더 연장하면 1980년 이래) 중국은 매년 10% 가까이 성장했다. 이것은 7년마다 생산 규모가 2배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를 앞에서 보았던 미국과 유럽의 수치와 비교해 보면 중국이 주요국의 하나인 신흥

▶ 부국끼리 비교할 경우 이러한 문제는 작아진다. 따라서 앞에서 미국과 유로 지역의 생활 수준을 비교할 때 이 문제는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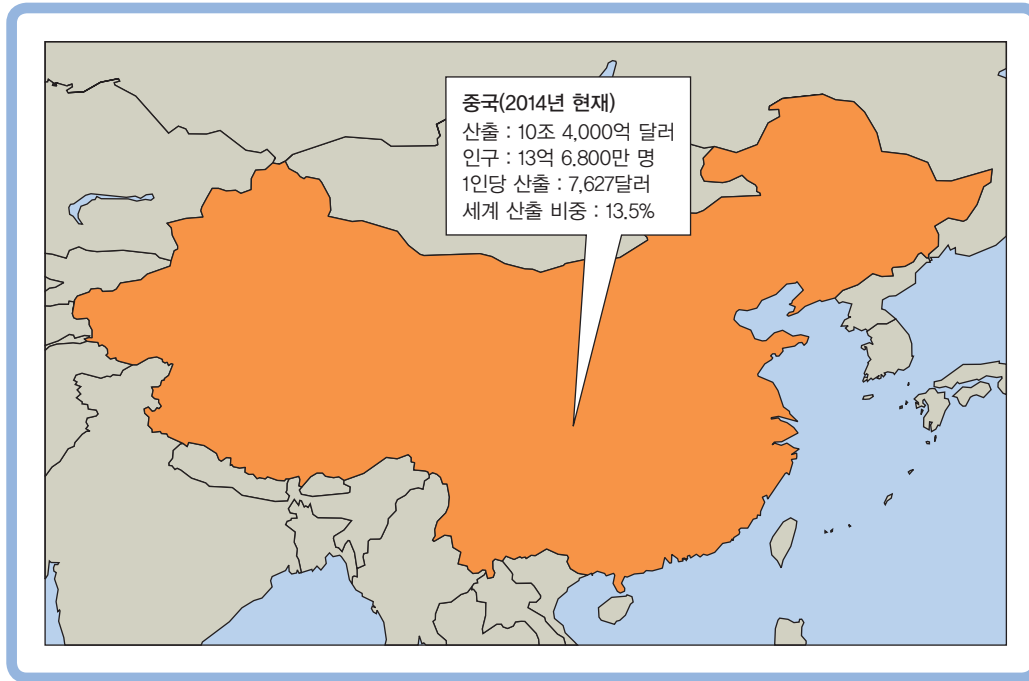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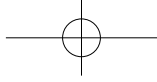


그림 1.7 중국(2014년 현재)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경제국들의 비중이 세계 경제에서 왜 그렇게 빠르게 커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표 1.4에는 두 가지 흥미로운 점이 담겨 있다. 첫째는 데이터에서 위기의 영향을 보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2008~2009년간 성장률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실업률도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이것은 중국이 여타 세계와 폐쇄적인 상태에 있어서가 아니다. 중국의 수출은 위기 동안 둔화되었다. 그러나 수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중국 정부의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한 상당한 재정팽창으로 인해 거의 완전히 상쇄되었다. 결과적으로 수요 그리고 그에 따라 생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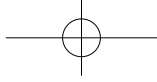
둘째는 경제성장률이 위기 전 10%에서 위기 이후 9% 미만으로, 2015년에는 6.8%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는지와 중국이 새로운 저성장기로 진입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표 1.4 중국의 성장, 실업, 인플레이션 : 1990~2015년

퍼센트(%)	1990~2007년 (평균)	2008~2009년 (평균)	2010~2014년 (평균)	2015년
경제성장률	10.2	9.4	8.6	6.8
실업률	3.3	4.3	4.1	4.1
인플레이션율	5.9	3.7	4.2	1.2

경제성장률 : 산출(GDP)의 연간 성장률. 실업률 : 연간 평균. 인플레이션율 : 물가(GDP 디플레이터)의 연간 변화율.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5. 7.



그에 앞서 수치의 정확성 여부도 의문이 된다. 성장이 과장된 것은 아닐까? 어찌되었건 중국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이고, 공무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부문이나 지역의 성과를 과장할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본 경제학자들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통계지표는 선진국만큼 신뢰할 수 없지만, 뚜렷한 왜곡은 없다. 중국에서의 경제성장률은 실제로 매우 높다. 그렇다면, 성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것은 분명히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한다. 첫째, 매우 높은 수준의 자본 축적이다. 중국의 산출 대비 투자 비율, 즉 투자율은 48%를 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미국의 투자율은 19%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 규모가 커지면 생산성도 높아지고 산출도 증가한다. 둘째, 매우 빠른 기술 진보이다. 중국 정부가 따르는 전략은 외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생산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통상 외국기업들의 생산성은 중국기업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생산성과 산출 증가가 발생하였다. 또 다른 전략은 외국기업과 중국기업 간의 조인트 벤처를 장려하는 것이다. 중국기업들이 외국기업과 함께 일하고 배워서 중국의 생산성은 극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런 방식의 논의를 하다 보면 높은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의 달성은 쉬워 보인다. 어떤 가난한 국가도 따를 수 있고 따라야만 하는 쉬운 처방전이다. 그러나 사실상 현실은 덜 분명하다. 중국은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많은 국가 중 하나일 뿐이다. 러시아와 중부 유럽을 포함한 체제전환국들은 전환기에 산출이 크게 감소했다. 대부분의 국가가 아직 중국보다 크게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기업들은 광범위한 부패와 열악한 사유재산권 때문에 투자하기를 꺼린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였을까?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다. 일부는 전환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데 따른 결과라고 믿고 있다. 중국이 취한 첫 번째 개혁은 1980년에 농업 부문에서 이루어졌고 현재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국가 소유로 남아 있다. 다른 이들은 공산당이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제로 경제적 전환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엄격한 정치적 통제가 최소한 기업들에게나마 사유재산권을 더 잘 보호해 투자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 이들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고 그에 따라 다른 가난한 국가들이 중국의 경험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배움으로써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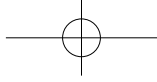
▶ 엄격한 정치적 통제는 부패를 확대시키고, 부패는 투자를 위협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펼치고 있다.

동시에 최근의 성장 둔화는 일련의 새로운 의문을 제기한다. 경기 둔화는 어디에서 비롯한 것일까? 중국 정부는 고성장을 유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대부분의 경제학자 그리고 실제로는 중국 당국 스스로도 이제 낮은 성장이 바람직하며 투자율 감소는 산출을 소비로 더 전환시킴으로써 중국 국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투자에서 소비로의 전환은 중국 당국이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이다.

## 1.5 앞으로의 논의

이것으로 세계 경제 여행은 끝났다. 물론 살펴볼 만한 다른 많은 지역들도 존재한다.





- 인도 : 12억 7,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가난한 대국으로, 중국과 마찬가지로 현재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제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
- 일본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40년간 경제성장의 성과가 매우 인상적이어서 경제 기적이라 불렀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매우 빈약한 성과를 보였다. 1990년대 초 주식시장이 붕괴한 후 일본은 불황의 지속을 경험하여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를 하회하였다.
- 남미 : 199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며 강력한 성장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분적으로 상품가격 하락으로 말미암아 성장 둔화를 경험하고 있다.
- 중부 및 동부 유럽 : 1990년대 초반 대부분의 국가가 중앙계획체제에서 시장체제로 전환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전환은 초기에 산출 급락을 낳았다. 폴란드와 같은 일부 국가는 이제 높은 성장률을 보이지만, 불가리아와 같은 국가들은 여전히 분투하고 있다.
- 아프리카 : 수십 년간 경제적 정체로 고통받았지만, 일반적인 인식과는 반대로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높아져 10년간 5.5%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고, 대륙의 대부분 국가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첫 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다. 드러난 질문들을 생각해 보자.

- 글로벌 금융 위기가 야기한 큰 문제 :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위기는 미국에서 여타 국가로 왜 그렇게 빨리 번졌는가? 되돌아볼 때, 위기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고 무엇을 했어야 했는가? 통화 및 재정정책은 적절했는가? 유럽에서 경기회복은 왜 그렇게 느린가? 중국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고도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사용해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는가? 명목금리 하한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 미국은 재정적자율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가? 유로 지역과 같은 공통통화 지역에 가입하는 장단점은 무엇인가? 지속되는 고실업을 줄이기 위해 유럽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 왜 경제성장률은 국가마다 그렇게 다르고, 장기간에 걸쳐서도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가? 다른 국가들도 중국을 모방해 같은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는가? 중국은 성장률을 낮추어야 하는가?

이 책의 목적은 이 질문들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필요한 분석 수단을 발전시켜 가면서 이들 질문으로 되돌아와 이들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이들이 보여 주는 답들을 검토할 것이다.

## 핵심 용어

공통통화 지역(common currency area)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유로 지역(Euro area)

## 연습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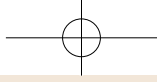
### 기초문제

- 이 장의 내용에 기초하여 다음에 대해 '사실', '거짓' 또는 '불확실' 여부를 밝히고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라.
  - 2009년에 선진국과 신흥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은 음(-)의 값을 보였다.
  -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9년 이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 전 세계 주가는 2007~2010년간 하락한 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 영국의 실업률은 유럽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다.
  - 중국의 높은 성장률은 신화이다. 이것은 과도하는 공식 통계의 산물일 뿐이다.
  - 유럽의 높은 실업률은 주요 유럽 국가들이 공통통화를 수용하였을 때 시작되었다.
  - 중앙은행은 경기침체를 피하고 싶을 때는 이자율을 낮추고,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싶을 때는 이자율을 높인다.
  - 유로 지역, 미국, 중국의 1인당 산출은 상당히 다르다.
  - 미국의 금리는 2009~2015년까지 0대에 있다.
- 유럽에서의 거시경제정책  
복잡한 거시경제 문제에 대한 간단한 답들을 조심하자. 다음 주장을 검토하고 고려하지 않은 점은 없는지 논하라.
  - 유럽의 높은 실업률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라.
  - 경제력을 규합하고 공통통화를 받아들이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유로는 유럽을 위해 분명히 좋은 선택이다.

### 심화문제

- 중국의 경제성장은 지난 20년간 세계 경제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 2010년에 미국 산출은 17조 4,000억 달러였고, 중국의 산출은 10조 4,000억 달러였다. 지금부터 중국과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연간 각각 6.5%, 2.2%라고 가정하자. 이것은 본문에서 보듯이 2010~2014년 동안 양국이 보였던 수치이다. 이 가정과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4년 이후 100년간의 미국과 중국의 산출을 계산하고 그림으로 나타내라. 중국의 산출이 미국의 산출과 같아지는 데 몇 년이나 걸리는가?
  - 총산출에 있어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면, 중국인은 미국인과 동일한 생활 수준을 가질 수 있는가? 설명하라.
  - 1인당 산출은 생활 수준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어떻게 1인당 산출을 높였는가? 이러한 방법은 미국에 적용 가능한가?
  - 생활 수준(1인당 산출)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국의 경험은 개발도상국이 따를 만한 모형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가?
- 2015년 현재 1인당 경제성장률은 미국이 직면한 주요 경제문제로 확인되었다. "2015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를 구하여 "Productivity and Related Data" 표를 찾아라(Table B-16). 이 표는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비농업 기업부문의 근로시간당 산출이 나타난 열을 찾는다. 이 수치는 2009년의 값이 100인 지수로 표현되었다. 2009년~2010년간 근로시간당 산출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이 값의 의미는 무엇인가?
    - 이제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여 1970~1979년, 1980~1989년, 1990~1999년, 2000~2009년, 2010~2014년간 근로시간당 산출의 평균 증가율을 계산한다. 지난 10년간의 생산성 성장을 다른 10년과 비교하라.
    - 더 최근의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를 찾아서 2014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당 산출의 평균 증가율 추정치를 다시 계산하라. 생산성 증가가 개선되었는가?



### 추가문제

#### 5.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기침체

이 문제는 지난 40년간의 경기침체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 웹사이트 [www.bea.gov](http://www.bea.gov)에서 1960년부터 최근까지의 미국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구하라. BEA의 Survey of Current Business 책자에서 표 1.1.1은 실질 GDP의 % 변화율을 보여 준다. 이 자료는 스프레드시트로 복사할 수 있다. 1960년 1분기부터 가장 최근의 분기까지 분기별 GDP 증가율을 그림으로 나타내라. 음(-)의 성장률을 보인 분기가 있는가? 2분기 또는 그 이상 연속적으로 음의 성장률이 나타나는 시기로 정의되는 경기침체에 대한 표준적 정의에 기초해 다음의 문제에 답하라.

- 미국은 1960년 이래 경기침체를 몇 차례나 경험했는가?
- 각 경기침체는 몇 분기 동안 지속되었는가?
- 기간과 정도를 기준으로 가장 심각했던 2개의 경기침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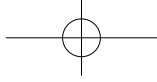
찾아라.

- 문제 5에서 여섯 번의 전통적 경기침체를 경험했던 분기를 찾아라.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FRED) 데이터베이스에서 계절 조정된 실업률에 대한 월별 시계열을 찾아라. 1969년부터 최근까지의 월별 실업률 시계열을 복사하라. 모든 시계열은 계절 조정된 수치를 사용하라.
  - 1969년 이래 개별 경기침체를 검토하자. 음의 성장률을 보인 첫 분기의 첫 달의 실업률은 몇 %였는가? 음의 성장률을 보인 마지막 분기의 마지막 달의 실업률은 몇 %였는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 어떤 경기침체에서 실업률 증가가 가장 컸는가? 산출이 처음 하락한 분기 직전의 실업률에서 시작하여 다음 경기침체가 발생하기 전에 경험한 가장 높은 실업률까지를 살펴보라.

### 더 읽을거리

- 현재의 경제사건과 문제를 파악하는 최선의 방법은 영국에서 발간되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보는 것이다. 이코노미스

트는 정보가 많고, 잘 쓰여 있고, 재미있고, 견해를 갖고 있다. 정기적으로 읽기를 권한다.



## 부록 : 거시경제 데이터의 출처

지난 5년간 독일의 인플레이션율을 알고 싶다고 하자. 50년 전의 답은 독일어를 배우고, 독일 책이 있는 도서관을 방문하여, 인플레이션율이 적힌 페이지를 찾아 옮겨 적고, 깨끗한 종이 위에 손으로 그림을 그려 보는 것이었다. 오늘날 데이터 수집 방법의 개선, 컴퓨터 및 전자 데이터베이스의 발전, 그리고 인터넷 접속 덕분에 이런 일은 훨씬 쉬워졌다. 이 부록은 데이터를 찾는 방법을 알려 준다. 데이터는 작년의 말레이시아 인플레이션율일 수도 있고, 1959년 미국의 소비일 수도 있으며, 1980년대 아일랜드의 실업률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는 스프레드시트로 받아서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 현재의 수치에 관한 빠른 참조를 위해

- 많은 국가에 있어서 산출, 실업률, 인플레이션, 환율, 이자율, 주가에 관한 가장 최근의 수치에 대한 최고의 자료원은 매주 발표되는 이코노미스트지의 마지막 4페이지이다([www.economist.com](http://www.economist.com)). 이 웹사이트는 이어지는 웹사이트의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독자만 이용 가능한 정보가 모두 담겨 있다.
- 미국 경제의 최근 수치에 대한 양질의 정보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https://research.stlouisfed.org/datatrends/net/>)에서 월별로 발표하는 *National Economic Trends*가 있다.

### 미국 경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 미국과 다른 국가들에 대해 1960년대까지의 수치도 이용 가능한 편리한 데이터베이스로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base(FRED)*가 있다. 이것은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이 관리한다. 무료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이 책에서 사용된 데이터의 상당 부분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다([www.research.stlouisfed.org/fred2/](http://www.research.stlouisfed.org/fred2/)).
- 1년에 한 번 경제자문위원회가 작성하는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는 현재의 추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수치를 제공하는데 종종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보고서는 경제에 대한 보고서와 통계표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모두 [www.gpo.gov/erp/](http://www.gpo.gov/erp/)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국민소득계정에 대한 보다 최근의 수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www.bea.gov](http://www.bea.gov))에서 월별로 발표하는 *Survey of Current Business*를 참고하라. 경제분석국에서 발표하는 통계에 대한 사용자 가이드는 *Survey of Current Business*의 1996년 4월호를 참고하라.
- 국민소득계정에 대한 표준 참고서적은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이 발표하는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of the United States*, Volume 1(1929-1958)과 Volume 2(1959-1994)이다([www.bea.gov](http://www.bea.gov)).
- 경제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데이터의 경우 중요한 자료원은 미국 상무부 인구통계국에서 매년 발표하는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http://www.census.gov/library/publications/2011/compendia/statab/131ed.html>)를 참고하라.

### 다른 국가들에 대한 경제 데이터

파리에 위치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ww.oecd.org](http://www.oecd.org))는 대부분의 부국(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을 포함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모두 세계 산출의 70%가량을 차지한다. OECD 자료의 장점은 많은 변수에 대해 OECD가 회원국 간에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고, 비교 가능하지 않을 경우 이를 알려 준다는 것이다. OECD는 세 가지 유용한 출판물을 발간하며 모두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첫 번째는 1년에 두 번 발간되는 *OECD Economic Outlook*이다. 현재의 거시경제 문제와 추이를 설명하는 동시에 많은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데이터 부록을 포함한다. 데이터는 통상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시간별, 국가별로 일관되